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30일 나주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에 관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와 유치가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 전남도 제공

1.2조원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 “나주·군산·경주 3파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선정하는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소 유치 경쟁이 전남 나주, 전북 군산, 경북 경주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고갈 위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전남도·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연구재단의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당초 7개 지자체가 유치를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나주, 군산, 경주 3개 지자체만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융합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나주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광주·전남·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꿈의 에너지 산업을 선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13일 한국연구재단 제안서 마감... 나주·군산·경주 3곳 접수

18일 나주 등 현장실사→21일 PT 평가... 이달 말 선정 발표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의 초전도체 시험설비, 부지 안전성,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나주야말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나주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인공태양 연구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나주시가 제안한 나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단과 인접부지 50만㎡(15만평 이상)는 지질 안전성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견고한 화강암 지반으로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주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연구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굳힌 가운데 고속철도 등 우수한 교통망과 인근 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력한 경쟁 지역으로 떠오른 전북 군산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단일 부지(50만㎡ 이상)를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력망을 비롯, 도로·철도·항

만 등 기반 인프라와 용수 확보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핵융합 연구소 유치지로 적합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군산은 기존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인접성 덕분에 연구와 기술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연계 활용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유치에 나선 경북 경주는 오랜 시간 동안 원자력 산업 관련 연구가 이뤄져온 도시로, 감포 문무대왕과 학연구소의 2단계 51만㎡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중·저준위 방폐장 등 국가 원전산업 핵심 기관이 집적돼 있다.

이 지역의 핵심 장점은 원자력 관련 기술력과 인프라의 집합체로서 핵융합 연구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주는 지질 안전성에서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지역은 과거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구소 입지의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핵융합 연구소의 후보지 선정 다음 일정은 연구소 제안 부지 현장 실사로 나주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국가연구소 유치의 승패를 가를 제안서 발표 프레젠테이션(PT)은 21일 이뤄지며 이후 이달 말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과학계 한 인사는 “이번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 경쟁은 인프라·지질 안전성·확장성 등 3가지 요소가 핵심인데, 이를 종합하면 나주와 군산이 경쟁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에만 유일하게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 부재한 가운데, 두 지역 모두 대규모 부지를 확보한 데다 향후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을 앞세우고 있어서 PT 평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핵융합 연구소의 유치는 단순한 연구시설 유치를 넘어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산업적 성장 잠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시설이 준공되면 선정 지역에는 향후 3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최대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만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부

여·야 광주·전남서 ‘혁신 드라이브’ 승부
 민주 “혁신-공정 경선” 공천률 심사기준 금명간 확정
 혁신 “정치적 메기, 호남 교두보” 전당대회 바람몰이
 국힘 “경쟁 회복, 지지율 20%”, 진보 “광역의원 10명”

지방선거가 2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광주·전남 민심을 잡기 위한 ‘혁신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공천 잡음 등으로 ‘전국 최저 투표율’이라는 민심 이반을 경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경선, 혁신 공천에 올 인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광주·전남을 교두보로 민주당 독점 체제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도 혁신적 민생 행보를 통해 각각 ‘정당 지지율 20%’와 ‘기초단체장 2석·광역의원 10명’을 목표로 표방갈이에 돌입했다.

16일 지역 정가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이르던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내년 지선 공천론인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원 민주주의, 안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를 4대 원칙으로, 텃밭 광주·전남의 경우 노 컷오프 기조 아래 엄격한 자격 심사와 예비 경선(권리당원 100%), 본경선(권리당원 50%+ 여론 50%)을 치를 예정이다.

후보 난립에 따른 조별 경선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중앙당 자격 심사, 여성 특구 등은 중요 변수이자 논란의 대상이어서 잡음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다.

강력범죄와 성(性)·가정·학교 폭력, 음주·뺑소니, 명백한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예외 없는 부처격자’로 분류해 경선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하위 20%를 걸러내는 현역 평가도 실행대에 올라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전남도, 벼 재배 면적 전국 최대 규모 감축

전년 대비 5295ha 줄어... 산지 쌀값 상승 견인

올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000ha 이상 줄어들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벼 재배면적은 14만2443ha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4만7738ha보다 5295ha 줄어든 수치다. 전국 시·도 중 최대 면적을 감축, 산지 쌀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감축 규모는 전남 5295ha, 충남 4515ha, 전북 3629ha, 경북 2723ha, 경남 2254ha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만199ha(2.9%)가 줄었다. 전남 지역은 8개 시·도 중 최대 감축 폭인 3.6%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했다.

이에 전남도는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조식료 등의 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과 농경지 면적은 유지하면

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67대 17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500ha 30억 원, 조사료 재배단지 200ha 2억 원, 논콩 전판단지 조성 8곳 21억 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전년 18만2700원보다 4만5116원 높은 22만7816원을 기록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쌀값 상승의 일등공신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다 논콩·조사료 등으로 전환해준 농업인”이라며 “벼 재배농가와 논 타작물 재배농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전남도는 2026년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 RPC 벼 매입자금,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등에서 가점 혜택을 받는다. /염성호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